

1920~30年代 나의 齒科醫業 回顧記

安 鍾 書 口 述

- ◇…… 本文은 大韓齒科醫學研究會誌 第2卷(1961年度)에 掲載된 바 있……◇
- ◇……는 內容을 轉載하는 것입니다. 故 安鍾書 先生님(1968年 8月 16日……◇
- ◇……逝世)의 口述을 整理收錄한 것이다. 當時의 齒界醫學界를 詳細하……◇
- ◇……게 取扱했으므로 여기에 다시 紹介합니다. (編輯者 註) ……◇

나는 1897年生(6月 24日)이다. 齒科醫學을 工夫하게된 動機는 이렇다. 서울에서 書堂을 거쳐서 徵文義塾을 卒業하고 집에서는 日本으로 留學가기를 勸했으나 나는 中國留學을 決心했었다. 北京에 가서 崇實書院에 入學하고 있었는데 3學年에 當時의 韓國獨立運動 亡命政客들의 生計를 보니 形容할수 없는 貧困이있기에 나는 衣食住問題의 解決이 先行이라 여기고 技術을 배우려고 歸國했다. 그때 막 三·一運動이 있어 서울에 오니 撤市 1個月이나 되는때이었는데 新聞을 보니 齒科醫學學校設立報도가 있었다. 그래서 齒科는 約半年쯤 배우면 되는줄만 알고 當時의 總督府病院齒科 柳樂遠見先生 밑에 다니면서 한편으로는 齒科醫學學校(夜間) 入試工夫를 했었다. 入試準備는 1週日程度였다. 當時 第1回 齒科學生은 大部分이 日本人이었다. 卒業은 1925年(大正 14年)에 했다. 나는 修業次 곧 渡美留學을 希望하고서 于 先 日本京都에 갔다가 좀 배우고

出發하려 했었다. 그런데 偶然히 세부란스齒科에 들렀더니 DR. BOOTS가 말하기를 自己와 함께 일하면 어떻겠느냐고 하기에 그만 그네로 그와 함께 共일하기로 決定했다. 그때 DR. BOOTS는 來韓 2年째이었다고 記憶된다.

1925年頃 齒科報酬는 金冠이 8圓拔齒가 1~10圓程度이었다. 내가 세부란스에는 8,9年있었는데 그때 鄭保羅, 李有慶, 李東煥氏等이 齒科醫學學校에 다니면서 四學年에 實習을 왔었다. 鄭保羅氏는 그때 이미 大端히 熱意있고 着實한 態度로 實習을 했었기에 나는 그가 將次有能한 齒科醫師가 되리라고 말했었다.

齒科醫師會를 韓國人끼리 組織한 것도 이때이었다. 會員은 처음 7.8名이었다. 會長은 咸錫泰氏이고 總務는 내가 했었다. 會員이 적었으니 모두가 會員兼部長(理事)라는 것이었다. 當時의 齒科開業醫師는 모두 一流生活水準이었다. 入齒業者도 2名程度가 서울에 있었다.

세부란스를 辭職하고 빠고다公園 뒤에서 2~3個月 開業을 하다가 곧 天津으로 갔다. 빠고다公園뒤 2層煉瓦집에서 開業을 하니 첫달 收入이 700圓이었는데 이것은 當時의 一般醫師들도 별수 없는 巨額이었지만 나로서는 그래도 收支가 맞지 않았기에 天津으로 간 것이다. 天津에 있던 南溪大學 齒科屬託醫라는 名譽職을 갖고서 간 것이다. 當地에서는 佛蘭西租界에서 大規模로 開業했다. 1.2層에 모두 待合室을 만들고 高官들만을 取扱했다. 患者가 너무 많으니까 一般市民은 도저히 取扱할수가 없었다. 一流銀行總裁, 大學總長, 教授, 著名人士들만 相對해도 時間이 없었다. 前記大學은 周恩來가 卒業한 中國屈指의 傳統있는 大學인데 그 大學總長 장박영氏가 나를 특별히 돌봐주었기 때문에 中國人들의 信任은 大端했었고 日本人들도 亦是 같보지 못했었다. 내 生涯의 黃金時代는 이때이었다. 經濟的으로 부러운것이 없었으니 말이다. 天津에서 歸國한

것은 二次大戰 勃發直後이었다.

臨床經驗을 回顧하면 재미있던 일은 많았지만 料金關係로 周圍사람들을 놀라게한 것으로는 이런 것이 있다. 세부란스에 있을적 일이다. 某日 三代獨子라는 小兒가 多數의 家族과 함께 來院했다. 下顎乳齒前齒인데 京城帝大의 名醫들도 治療했으나 治療가 되지 않고 拔牙로 못했다고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富者집 獨子라 하니가 無痛拔牙을 하기 爲해서 入院을 해야 된다고 했다. 勿論 特等室에 案内되었다. 다음날 手術室에 올라가서 患者를 불렀다. 家族들은 大端히 緊張하고 있었다. 나는 아이가 手術室에 들어서자마자 손으로 그베로 흔들리는 乳齒를 瞬間으로 뽑아 버렸다. 아이는 울사이드 없었다. 家族들은 참신기한 技術을 가졌다고 놀랐다. 어쩌면 그렇게 빨리 拔牙을 하느냐는 말이었다. 아이는 곧잘 뛰고 놀았다. 그러니까 家族은 그날 夕陽에 退院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退院을 禁하고 하룻밤 머물도록 命하고 다음날 手術料 30圓을 請求한 것이다. 30圓이라면 外科 大手術도 30圓이라는 것은 흔하지 않았던 것이니 病院內는 내가 30圓請求했다는 것이 큰 話題가 되었었다. 좀 싸게해 달라는 말도 있었으나 富者니까 30圓을 받았다. 京城齒科醫學校時節의 指導教授의 水準을 端的으로 알수있는 것으로는 이런것이 있다.

어느때 日本人先生이 妙齡의 日本女子를 보고 있는데 옆에서 보자니까 硝酸銀을 前齒에 塗布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冊에서 본대로 그 非를 알고서 그 先生에게 硝酸銀을 前齒에 발라도 좋으나고 疑訝스러운 態度를 했더니 마구 火를 낸 일이 있었다. 指導先生의 實力이라는 것이 勿論 있는이는 大端했지만 形便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形便없는 사람들이 韓國에 와서 큰소리치고 있었다.

= 編譯者 調査 =

安鍾書氏는 本貫 順興, 僉樞公派 25代孫. 同 21代부터 漢陽에 居住하게 되었으니 約 150年前부터 同家門은 서울에서 살고 있었음. 同氏는 8歲에 書堂에 入學하여 勉學하다. 官立漢城師範附屬學校가 創立되자 同校 第3學年에 轉學하고 同校卒業後는 微文義塾을 卒業하고서 渡中하여 崇實書院 第3學年을 中退歸國後 京城齒科醫學校를 卒業함. 따라서 同氏의 經歷은 다음과 같다.

본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52번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199의 2호

- 1915. 3. 휘문의숙 졸업
- 1917. 11. 중국 북경승실서원수로
- 1921. 3. 경성치과학교 입학
- 1925. 3. 졸업
- 1925. 4. 세부란스의학전문학교
- 1931. 12. 치과학 교실 근무

- 1926. 1. 한국인치과의사회(한성치과의사회)결성동회총무직취임
- 1931. 12. 중국 천진불란서조계에 서 개업
- 1939. 4. 귀국후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개업
- 1940. 2. 휘문소학교 후원회회장
- 1945. 8. 취임
- 1945. 8. 풍문여자 중고등학교후원회장 취임
- 1957. 4. 대한치과의사회 회장
- 1945. 12. 1946. 5. 피임
- 1946. 4. 미국 군정청보건부치과 의사자격심사위원장 피임
- 1946. 2. 1950. 6. 국립서울대학교이사 피임
- 1949. 8. 1958. 7. 풍문학원 제단 이사 피임
- 1952. 5. 1953. 7. 대한민국 보건부 보건위원 피임
- 1652. 5. 대한치과의사회 회장 피임
- 1954. 3. 1955. 9.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 지사장 피임
- 1955. 4. 1960. 3. 국립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장 피임
- 1957. (1년간) 대한민국 보건부 치과 의사 국가시험위원 피임
- 1958. 5. 1960. 4. 대한치과의사회 회장 개업
- 1961. 5. 국립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후원회 이사 피임

◇ 상 별

- 1954. 대한치과의사회로부터 공로 표창 받음
- 1955. 이승만대통령으로부터 적십자특별 유공훈장 받음
- 1957. 보건사회부로부터 치과계 공로표창 받음

동일치과재료상회

東一齒科材料商会

TEL.(96) 8519